

강릉 공동 무형문화유산 권고문

2009년 11월 24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강릉에서 개최된 동아시아 공동 무형문화유산 국제포럼에 참석한 우리 참가자들은,

동아시아 및 세계 각지의 공동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개념과, 정치적 경계를 넘어 공동 유산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며,

무형문화유산의 본질적 특성은 공유성이라는 점과, 따라서 서로 다른 공동체나 민족이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는 것은 예외적인 일이 아니라 흔한 일이라는 점을 인식하며,

공동 무형문화유산이 서로 다른 공동체와 국가간 상호 이해와 존중에 기여한다는 점을 유념하며,

불행히도, 최근 일부 무형유산, 특히 유네스코의 무형유산목록에 등재된 무형유산의 기원이나 문화적 소유권을 두고 예상치 못한 논란이 있었음을 인정하며,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가주의적 접근이 동아시아뿐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갈등을 재연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유네스코 사업의 당초 취지와 어긋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2003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당사국들과 정부간, 비정부간 기구 및 무형유산을 다루고 있는 이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한다.

1. 무형문화유산은 영토적 경계를 넘어 사람들이 서로 공유하는 것이며, 영토적 경계가 문화적 경계가 될 수 없다는 데 대한 지역 차원의, 국제적 차원의 인식을 증진한다.

2. 공유 무형문화유산 발굴 및 지역 내 목록 작성을 위한 공동연구를 권장한다.
3. 공동체 및 국가가 서로 공유하고 있는 문화요소에 대한 교육을 증진한다.
4. 문화의 공유성과 공통성을 드러낼 수 있는 문화축제를 개최한다.
5. 유네스코의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과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상에 다국간 공동등재를 증진하기 위한 협력을 촉진한다.
6. 성공적인 공동 무형문화유산 보호 사례연구를 발굴하고 홍보한다.
7. 공동 무형문화유산 보호에 필요한 문화 교류와 기술 지원을 위한 지역간, 국가간 협력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협력 체계 구축을 고려한다.
8. 긴급보호무형유산목록 및 인류무형문화유산대표목록상 다국간 공동등재가 문화간 대화 및 협력 수단이 될 수 있도록 유네스코가 공동등재 기준, 지침, 절차를 구체화하도록 요청한다.
9. 유네스코와 밀접히 협력해 다국간 공동 등재 준비 및 추진을 위한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한다.
10. 유네스코가 지방자치단체 및 비정부단체들의 무형문화유산 다국간 공동 등재 노력을 권장하도록 요청한다.